

해방후 50년의 한국 종교사회학 연구사

김 종 서*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종교사회학적 관심의 시작은 벌써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찍이 한말에 벌써 서양선교사들이 한국종교를 사회적 관습들과 연관지어 논의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수립을 위한 사회조사활동 가운데 종교에 대한 통계조사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경대 사회학과 출신들이었던 아끼바(秋葉 隆)와 무라야마(村山 智順) 등의 한국 무속 및 민간신앙 연구 등에서 일부 사회적 관심이 표출된 바 있다.¹⁾ 그러나 본격적인 종교사회학적 이론에 관한 논의는 역시 해방후 서양의 고전이론들이 도입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이론의 도입은 주로 번역서들이 나오면서 시작된 셈인데, 최초로 역시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이 1958년에 번역되었고, 개설서로는 기능주의 입장에서 쓰여진 오데아(T.F. O'Dea)의 『종교사회학 입문』(*The Sociology of Religion*)이 1969년 권규식에 의해 번역되어 나왔다. 그리고 뒤이어 1973년에는 잉거(J. M. Yingier)의 개론서가 『종교사회학』으로 한완상에 의해 완역되어 나왔는데, 이러한 일련의 번역서들은 당시 짹트고 있던 사회학계와 신학 및 종교학계에서의 종교사회학적 관심을 반영해주는 셈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로 점차 확장되는 종교사회학적 연구나 강의들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론서의 번역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해 온 것을 알 수

* 서울대 교수

1) 해방전 한국 종교사회학에 대해서는 김종서,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제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243-314 참조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을 타고 70년대 후반 이후 8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벨라(R.N. Bellah), 버거(P.L. Berger), 루크만(T. Luckmann), 바움(G. Baum), 로버트슨(R. Robertson) 등 서구의 현대 종교사회학자들의 저술들이 경쟁적으로 소개 및 번역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로 서구 이론이나 문헌의 번역 및 해석을 위주로 하다보니, 지나치게 서구 이론만을 추종할 뿐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1979년에 나온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종교사회학의 저술인 오경환의 『종교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바이다. 물론 이 책은 번역이 아닌 독자적 저술로서 한국 종교사회학사에 분명히 두드러진 업적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동안 한국적인 종교사회학의 축적된 연구가 물론 거의 없었으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한국적 종교사회 현상의 독특성에 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나마 몇 안되는 그때까지의 한국 종교사회학적 업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전혀 그 공헌내용이 수렴되지 못했었다. 또 원시종교와 종교심리학적 내용 및 종교와 과학에 관한 논의 등 통상적인 종교사회학의 주류와는 동떨어진 주제에 대하여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직도 종교사회학이 다루어야 하는 영역의 범위가 한국에서는 책마다 혼동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 종종 해방신학이나 순수 이데올로기의 문제 등 오히려 신학이나 정치학적인 주제들도 오늘날 종교사회학적 연구라는 명목하에 등장되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비교적 한국적 상황에서의 종교사회학적 연구를 반영해 왔다고 생각되는 분야인 한국 신홍종교의 연구들에서는 한국적 특수상황은 비교적 고려되어 왔으나, 종교의 교리내용, 사상, 역사 등만이 지나치게 많이 논의되어 과연 종교사회학적 연구인지 종교학적 연구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상적 연구인지가 구별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상황과 종교사회학적 독특성의 문제가 점차 더욱 창조적으로 종합되면서, 초기에 오직 사회학자로서 이론이나 사회변동에 관심을 가졌던 일부 학자들의 비전문적인 연구들이 지양되고, 특히 1980년대 이후로는 한층 더 종교사회학의 전문가로서 훈련되고, 집중하여 본격적인 업적을 내는 학자들의 연구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이 이 글을 필자가 쓰도록 동기화하는 핵심적 요소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종의 ‘한국 종교사회학의 연구사’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해방후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종교사회학적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함이 그 목표이지만 특히 80년대 이후의 본격적인 업적들에 그 대체적인 초점을 맞추려 한다.

아마도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종교사회학적 연구들을 연구사적으로 정리해낸 첫번째 논문은 1984년 『사회학 연구』에 실렸던 김영식의 「한국에 있어서의 종교사회학 연구 현황」일 것이다.²⁾ 필자의 이 글은 특히 초창기 자료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이 김영식의 논문에 실로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김영식의 논문은 처음으로 시도되다 보니 빠진 자료가 많았고,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종교사회학 업적들이 취급되지 못하였었다. 또 주로 쓰여진 시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종교사회학적 연구들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체계적인 검토는 아니었다. 따라서 필자는 비록 학문적 한계와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조금 더 과감하게 종교사회학 내에서 분야별로 이루어져 온 주요 논의 전개과정들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해외 연구성과들의 쟁점과 연관된 논의 그리고 한국 종교사회적 독특성을 반영하는 논의 등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의미있는 연구업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검토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2. 방법론과 종교조사

아무래도 현대 한국의 종교사회학적 연구성과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바로 방법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독특한 한국적 종교사회학의 방법론적 논의라 할 만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다만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 뒤르켐의 『종교생활의 기본 형태』가 번역되어 읽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권규식이 주로 베버적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썼던 논문들을 모아 펴낸 『종교와 사회변동』(1983)은 한국에 서양 종교사회학의 고전적 방법론을 착실히 소개해 온 셈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또 배

2) 이 논문은 특히 종교사회학 관계문헌들을 수량적으로 고찰하여 사회학 전체 맥락 속에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용광이 1978과 1979년에 「종교의 본질」이라는 제목하에 뒤르켐과 짐멜의 종교개념을 소개하고 있음도 주목할만 하다.

한편 버거의 『종교와 사회』(1981, *The Sacred Canopy*)와 『이단의 시대』(1981, *The Heretical Imperative*) 및 루크만의 『보이지 않는 종교』(1982, *The Invisible Religion*)와 벨라의 『사회 변동의 상징구조』(1981, *Beyond Beliefs*) 등이 번역되었고, 정재식이 『종교와 사회변동』(1982)에서 「종교와 사회행위의 이론」이라는 제목하에 파슨스의 기능주의적 종교사회학 방법론을 소개한 것이나 송천온이 「종교사회학의 신진화론적 분석」(『원광대논문집』 1982)에서 벨라의 방법론적 입장을 정리한 것과 김종서가 「현대 종교다원주의의 이론연구」(『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VI, 1990)와 「버거 종교변동론의 이론적 기초」(『현대 한국종교 변동연구』 1993)에서 버거의 방법론을 정리한 것 그리고 이원규가 「신학과 사회학의 만남」(『기독교사상』, 1985)에서 현대 종교사회학의 신학적 관계의미를 확인한 바 등을 서양 종교사회학 방법론의 최근 경향들을 다루어 온 셈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서양 종교사회학적 방법론들을 충실히 소개하는 것 이상을 결코 못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한국적 종교사회학을 개발해내려면 적어도 우선 '일상적' 한국인의 종교를 사회적 맥락에서 독특하게 정의해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³⁾ 무엇보다도 번역 종교사회학의 틀을 과감히 깨고 한국의 종교상징 구조와 역사적 상황적 맥락이 고려된 나름대로의 방법론적 노력이 더욱 요청되는 바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 종교측정론의 발달과정은 종교인구 조사의 정교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⁴⁾ 종교인구에 관한 통계가 최초로 나타난 것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1907년에 벌써 우리나라에 있는 절과 교회의 숫자가 통감부에서 실시한 통계조사 항

3) 예컨대 선교사로 왔었던 게일이 구한말 한국의 종교를 묘사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 속에서 종교는 좀 독특하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Gale, J., *Korea in Transition*, N.Y.: Educational Department,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9(신복룡의 옮김, 『전환기의 조선』, 서울: 평민사, 1986, 제 3장).

4)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종교인구 조사는 대체로 실천적 조사나 현상분석 조사 일 뿐 순수 학술연구 조사가 거의 없으므로, 한국적인 척도의 개발 등 측정론에 대한 순수 이론적인 논의는 거의 없는 셈이다.

목에 포함되더니, 1908년부터는 각 종교의 신도수가 측정되고 있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는 각 종교의 신도수가 세부 종파별로 분류조사되고 또 지방별 분포까지도 고려됨과 동시에 심지어는 누계조사표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이 조사통계들의 문제점은 조사방법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아서 신뢰도나 타당도가 의문시되고, 오직 불교, 기독교, 神道만을 公認宗教라 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종교, 즉 유교나 도교 및 그 당시 한창 새롭게 일어났던 여러 신종교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물론 ‘유교 및 향사에 대한 조사’와 이른바 당시 ‘유사종교’들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는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공인종교들처럼 정기적으로 철저히 된 것들이 아니었다.

해방 후에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1960년대부터 종교관계의 통계를 통계연보에 포함시켜온 것과 더불어 각 종단의 보고에 기초한 문화(문화부)부의 『종교단체현황』이 이삼년마다 통계자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종단보고들에 근거한 신도수는 해마다 인구증가율을 훨씬 압도하여 1988년에는 총인구보다 많은 4300 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런 숫자는 종단에 따라 철저한 신도를 모르거나 또는 교세를 시위하기 위한 의도로서도 생각되어 매우 비판적으로 인식되고, 심지어 해외의 학술적인 논의에서는 거론하기조차 창피한 것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러나 반면에 한국종교 자체의 중충다원성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현상만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인은 유교인이면서 불교인이고 또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정부당국의 조사로는 1983년의 ‘시도상주인구조사’도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종교인구에 대한 전수조사라 할 1985년의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는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라는 명목척도에 의한 단일항목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던 것인데 총인구 중 종교인구가 42.6%로 나오고, 이 가운데 불교인이 약 800여만명, 개신교인이 650만명, 천주교인이 190만명 그리고 유교인이 50만명 정도로 측정되었다.⁵⁾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때쯤부터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소위 기독교인이 불교인보다 드디어 약간 더

5) 그 외에, 원불교가 9만여명, 천도교 3만명, 대종교 1만여명으로 조사되었다(문화공보부, 『종무행정자료』, 1988, pp.6-7).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어서 두번째 전수조사라 할 199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도 종교인구조사가 포함되었다. 물론 방법은 1985년 조사와 거의 같은데 그 결과는 총인구 4,460만명 중 종교인구가 2,280만명으로 51%를 약간 넘어서고 있다. 10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종교인구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각 종교 별로는 불교인이 약 1,040만명, 개신교는 880만여명, 그리고 가톨릭은 300만명으로 집계되어 기독교 전체인구가 불교인구를 더 많이 앞지르고 있다.⁶⁾ 특히 가톨릭은 58%의 급성장을 보이고 있고 유교는 -62%의 성장 즉 급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⁷⁾

한편 정부의 종교인구 통계이외에 한국에서의 실제적인 종교측정론 분야의 발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역시 한국갤럽연구소의 종교조사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은 특히 세련된 조사방법론과 국제적으로 고려된 설문들을 사용하여 실시된 비교적 정밀한 표본조사들이었기 때문이다. 1983년에 전국에 걸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결과가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1984)으로 출판되었고, 또 1989년에도 비슷한 조사가 실시되어 다음해인 1990년 출판된 바 있다. 그런데 갤럽조사 중에서는 비록 서울지방의 400명의 표본만을 설정하여 규모는 작았지만 측정방법론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조사가 1984년 실시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종교들이 기독교에 비하여 신도들의 성원의식이 약한 것에 칙안하여, 단순한 명목적도에 의한 자기확인(self-identification) 방법을 탈피하고 간접적인 성원확인의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유교인이 1985년의 전수조사에서는 자기확인되었던 것이 50여만명에 불과하던 것이 조상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는 등 유교적인 생활패턴 속에 살고 있다는 소위 '실천유교인'은 전인구의 약 91.7%인 것을 밝혀내게 된다. 이 갤럽조사를 주도한 윤이 흄 등은 『종교조사의 방법론 개발과 한국인의 종교성향』(『한국종교의 이해』, 1985)에서 이렇게 성원의식이 불분명한 종교집단을 '연성종교집단'이라고 하고 반면에 기독교처럼 성원의식이 분명한 종교집단을 '경성종교집

6) 그 외에 유교는 19만여명, 원불교 8만여명, 대순진리회 7만명, 천도교 3만명, 대종교 1만여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제43호, 1996, pp.46-47).

7) 이에 비해 총종교인구의 성장률은 32%인 셈이고, 불교는 30% 성장, 개신교는 35% 성장을 한 셈이다.

단'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통계조사들에 병행하여 각 종단의 조사들도 여럿 있었다. 예컨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에서 1980년 발간한 『한국교회 100년 종합 조사연구보고서』와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에서 1985년 발간한 『사회조사보고서』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것들은 이런 교단들 자체가 통계적 조사에 근거한 실증적 자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한 교단내의 조사방법에 대한 축적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들이라 여겨진다.

이에 덧붙여 한국 신종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국종교학회에 의해 1985년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보고서로 나왔다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물론 한국신종교들에 대한 최초의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일제시대인 1935년 실시되어 무라야마(村山 智順)에 의해 『朝鮮の類似宗教』(1935)로 출판된 바 있었다. 그리고 해방후에는 1969년 문화공보부에서 『한국 신흥 및 유사종교 실태조사보고서』를 냈었지만 조사가 철저하지 못하여 무라야마의 조사보고서의 한계를 역시 극복하지 못해왔다고 생각되었다. 이들에 비하면 1985년의 보고서는 실제조사가 더욱 확장되어 오늘날 한국신종교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왔다고 하겠다. 아주 최근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강오의 『한국신흥종교총람』(1992)과 민족종교협의회의 『민족종교총람』(1992)이 출간되어 이 분야에 연관된 종교사회학적 연구에 길을 닦아 놓기도 하였다. 또 1993년 한국종교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종교연감』은 한말이후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대체적으로 집대성해놓고 있다.⁸⁾

하지만 해방후 한국인에 의한 종교의 실제조사 연구는 『아세아연구』(1956)에 게재된 최재석의 「신앙촌락의 연구」에서 벌써 보여진다. 이 논문은 당시 계룡산 신도안 지역의 신종교들을 실태조사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너무 작은 조사대상을 중심으로 아주 초보적인 조사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조사연구가 일반화되지 못했던 당시로는 과감한 시도였고 그후 많은 연구들에 시사하는 바가 컸다. 특히 이제는 신도안지역이 군사적 요새화되어 신종교들이 거의 철거되어 사라지거나 이동해 버려서 이 논문은

8) 이 연감은 특히 각분야 전문학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서 각종 통계 이외에도 대개의 단위종교단체들과 종교전문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종교의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본격적인 최초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는 통계적 방법이 기계화되면서 방대한 자료의 취급이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본격적인 통문화적(cross-cultural) 비교연구의 업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앞서 지적된대로 다양한 조사연구들이 행해지지만 그들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는 이론적 설명틀이 병행하여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한편 서양에서는 근자에 교구사회학의 社會誌的 연구들을 넘어서 사회적 요인변동에 따른 각종 종교분포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개신교의 지방별 분포나 巫의 지역적 문화권 연구, 또 신흥종교의 분포 등은 최근에 관심이 일어나는 주제들이다. 특히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과 포교지역의 분할에 관한 사항들은 실로 중요한 분야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 『梨大史苑』에 발표된 이현종의 「구한말 서구계 종교의 포교현황」이나 1974년 승전대 『논문집』에 실린 이광린의 「개화기 관서지방과 개신교—개신교 수용의 사례—」, 등은 비록 역사적 논문들이고 1990년 신중성이 쓴 「한국기독교의 전파과정과 지역유형」(『한국문화역사지리연구회』)은 자리적인 논문이지만 종교사회학적 분포론에서 같이 논할 만한 것들이다. 최근 도시화로 인한 농촌교회의 쇠퇴현상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원규의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에서 검토되었었다.⁹⁾

우리나라의 종교분포와 연관되어 더욱 흥미로운 것은 巫의 분포에 관한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일본학자들의 연구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북부 및 중부 지방의 경우 강신무가 우세하고 남부 지방의 경우 세습무가 혼한 것으로 조사 연구되어 온 바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아주 최근 일부 남부 지방에서 단골조직이 약화되면서 다시 소위 명두형 강신무로의 복귀가 일어나고 있음이 김태곤의 『한국무속연구』(1981)에서 강조되었다. 이것 역시 순수 종교사회학적 연구라기보다는 민속학적 연구이지만, 종교집단의 분포나 이동에 기초한 성격이해를 위하여 종교사회학적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9) 한편 최근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일동포의 불교분포에 관한 연구 보고도 있다. Hardacre, H., "Korean Temples in the Osaka Area", *The Religion of Japan's Korean Minorit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p.10-35.

3. 종교조직

종교사회학은 주로 종교조직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기독교회가 독특하게 지닌 폐쇄적 성격에 관한 구조적 연구들이 있다. 이원규는 「한국교회의 개방성과 폐쇄성」(『한국교회와 사회』, 1992)에서 파슨스의 유형변수(pattern variables)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교회는 객관적 보편적이지 못하고, 권위적 종적 지배형식에 얹매어 있으며, 배타주의적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었다. 또 서정운은 「한국교회의 구조적 문제성」(『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한국 교회들이 구조적으로 기구화, 자기중심화, 물량적 비대화를 추구하다 보니 비개방적 공동체로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서 한국巫의 사회적 조직의 독특성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나왔다. 즉 한국의巫는 기본적으로 神系組織. 혈연중심의 단골조직, 관의 허가를 얻어 (세속적으로) 자치단체의 성격으로 결속된 사회조직 등으로 구성되는 셈인데, 이들이 모두 조직 확대의 차원에서 보면 결정적인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김태곤, 『한국무속연구』).

한편 종교조직의 유지에 있어서 가능이론적 입장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대표적 문헌은 역시 권규식이 1969년에 번역한 오데아의 『종교사회학 입문』이었을 것이다. 또 1979년에 나온 오경환의 『종교사회학』 초판에서도 이것은 꽤 잘 정리되었다. 이에 비해 강인철이 1988년 번역한 오토 마두르(O. Maduro)의 『사회적 갈등과 종교』(Religion and Social Conflict)는 갈등론적 시각을 소개하였다. 또 김병서의 「한국사회 변동과 기독교 백년—갈등 사회학적 고찰」(『기독교사상』, 1984)에서도 유사한 시각이 적용되었다. 또 기능주의로부터 갈등주의를 거쳐 최근 버거 등에 의한 의미이론에 이르는 종교조직의 유지에 관한 이론들의 전개맥락을 간단히 논의한 것으로는 김종서의 「현대 종교조직의 유지이론 연구」(『정신문화연구』, 1991)가 있다.

종교조직의 유형연구도 매우 복잡한 발달과정을 겪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권규식이 「교파와 사회변동」(『종교와 사회변동』)에서 베버의 고전적 교회와 교파 개념을 잘 정리해놓고 있다. 또 1983년에 벌써 노치준이 니버의 『교회분열의 사회적 배경』(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을 번역해 내놓았다. 그리고 서구 교회-교파 이론의 개괄적 정리로서는 김종서의 「현대 종교조직의 유형론 연구」(『정신문화연구』, 1990)가 있다. 물론 서구적

교회·교파 이론에 우리의 종교조직을 억지로 끼워 맞추어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단지 서구에서 유래한 이론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된다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통일교가 기독교의 한 교파인가 아니면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신종종교인가라는 데 대하여 날카로운 의견대립이 있어 왔다.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라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무튼 이런 논쟁의 핵심이 교회·교파이론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오대양'이나 '휴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작은(특히 기독교) 교단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이들 교파의 발생 이유들이 거론되어 왔고 그때마다 박탈이론(deprivation)이나 인지부조화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 등은 (비록 학문적인 엄밀한 검토는 없어온 셈이지만) 흔히 등장해온 설명 틀들이다.¹⁰⁾

종교전문인은 종교조직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베버 종교사회학을 가장 본격적으로 다루어 온 권규식의 『종교와 사회변동』에서 예언자와 사제의 전형적 모델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정진홍의 「종교와 카리스마」(『사상과 정책』1984)에서는 사회학적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카리스마의 개념이 종교학적으로 새롭게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적인 종교전문인의 유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도 없는 셈이다. 다만 한국 고대사회의 종교전문인에 대하여 서영대의 「한국 고대 종교전문가」(『인하』 1984)라는 개척적인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본격적인 종교전문가의 출현을 신석기시대 이후로 잡고 있는데, 그 종류로는 王者, 王族, 天군, 巫, 日官 또는 日者, 점복자 등을 꼽고, 이들의 기능은 주로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뒷받침하며 개인의 생존을 가능케 함 등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 김원식의 「한국 기독교 '지도자'의 여러 유형」(『기독교사상』 1981)도 참고해 볼만 하다.¹¹⁾

한편 교권제도의 형식과 연관하여서는 개교회주의(congregationalism)에 관한 연구들이 많다. 개개교회를 위한 중요 결정들을 개교회가 스스로를

10) 이런 설명들들이 사실상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회학자들이나 정신병리학자 등에 의해 매스콤을 통해 무책임하게 마구 제시되어 온 경우는 매우 많다.

11) 한편 이와 연관되어 엄밀한 의미의 종교사회학적 연구는 아니고 또 외국인의 연구이지만 신양촌에 대한 Moos, F., "Leadership & Organization in Olive Tree Movement", *Transaction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1967): 11-27이 있다.

위하여 스스로 하는 이 개교회주의는 지방분권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교세확장을 최우선시 하다보니 개교회주의가 급성장해온 셈이다. 특히 한국 감리교회의 경우 선교초기에는 감리교회의 본래 특징인 목회경력 순환제도를 실시했었으나 최근에는 이것이 거의 사라지고 철저한 개교회주의가 되어 있다. 물론 개교회주의는 교세확장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대형교회나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부패 그리고 교회들간의 지나친 신도유치경쟁 등의 부작용이 비판되어 왔다. 노치준의 논문 「한국교회의 개교회주의」(『기독교사상』 1986)는 바로 이런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에서도 심지어 총무원이나 본당사 그리고 문중제도들에서 벗어나 각개 사찰의 자율권이 강조되는 個寺刹主義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방후 천도교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신종교교단에서는 교권을 민주선거제에 의해서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된 종교지도자가 카리스마나 효율적 교단통제에는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과연 한국적인 종교적 지도력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 여성해방의 물결이 종교계에도 확산되면서 서구 종교사회학에서는 최근 여성 종교전문인의 문제가 매우 중대한 연구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차별에 관한 연구는 여성신학의 빠른 전개와 맞물려 다양한 연구업적들이 속출하고 있다. 80년대에 이르러 특히 신학교들에 있어서 여학생의 숫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도 여목사의 수는 극히 적은 셈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개신교의 가장 큰 교단들인 대한예수교장로교 교단(통합측과 합동측 모두)이 수십년간 안건으로 상정되어 온 여목사 안수제도를 아주 최근에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안수를 받아도 실제로는 청빙이 안되고, 또 청빙을 받아도 대우가 남성목사들에 비해 훨씬 못한 셈이다. 따라서 여목사들은 대체로 노동자, 장애자, 불우 계층 등을 위한 특수목회에나 종사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차별이외에도 김명희의 「여성 성직자의 현황과 문제」(『기독교사상』 1989)에 의하면 낮은 급여에 휴일도 없이 일하며 또 노후대책도 없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서 개신교 여성 성직자들은 대개 성서중심의 근본주의적 신학적 견해에 묶여 있다고들 한다.¹²⁾

12)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국내에 여성들만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성신학 측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성 종교전문인에 관한 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주로 기독교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었지만 아주 최근에는 다른 종교로도 점차 확대되어 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유교, 무속 및 각종 신종교들에 있어서 여성 종교전문인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여성차별을 가장 심하게 하여온 종교로 여겨져 왔던 유교의 경우에 대해서조차도 성병희의 논문 「제례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여성문제연구』 1983)은 그것이 단순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할분담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는 고(전)혜성의 한국 비구니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 무속에서는 (하베이) 김영숙의 사회변동과 종교변동에 따른 무당의 전도부인으로의 역할변화에 대한 연구가 잘 알려져 있다.

4. 종교변동과 주변공동체

그러나 현대 종교사회학의 가장 각광받는 분야로는 종교변동론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종교변동이 사회변동에 종속변수인가 독립변수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이와 관련되어 오경환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이른바 구조적 접근법을 「제도적 종교와 사회변동의 촉진」(『가톨릭대학논문집』 198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독특하다.

한편 종교적 이념들과 그들의 사회적 ‘전달자’(carriers)는 역사 속에서 ‘서로를 추구한다’(seek each other out)라는 베버의 이른바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y)의 개념이 버거에 의해 새롭게 부각되어 왔다. 사실상 이 개념은 다양한 종교변동을 이해하는데 의미심장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19세기 후반에 동학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수많은 역사적 사회경제적 논문들이 쓰여져 왔다. 당시 열강의 침략상이나 이에 대한 반응양상 등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아마도 이런 맥락의 대표적인 종교사회학적 연구로서 김한구의 동학에 대한 논문들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대내적인 신분질서의 붕괴

로 인한 아노미 현상 등도 종종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contextual) 설명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데 왜 하필 동학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왜 다른 종교로는 그러한 것이 표출될 수 없었느냐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면에 동학 발생에 대한 이유를 오직 기존의 한국적 종교상징 구조의 틀로부터만 설명하려 한다면, 그런 원론적인(textual) 주장의 문제는 또 왜 하필 동학이 그 때 그 장소에서 발생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원스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 경우에도 전통적인 종교 상징구조와 사회경제적 상황간의 오묘한 선택적 친화력을 가정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있는 설명을 초대할런지 모른다.

이런 맥락의 논리는 박영신의 논문 「기독교와 사회발전」과 같은 한국 근대화와 기독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들이나 한완상의 논문 「교회 양적 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그리고 김병서의 논문 「오늘날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과 같은 한국 교회의 기적적 성장에 대한 논의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들은 결코 사회변동의 결과만이 아니다. 또한 순수한 기독교적 은총의 결과라고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는 황성 모의 논문 「한말의 종교적 상황」이나 황선명의 책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같은 더욱 더 거시적인 연구들에서 다루어 왔던 주제들에까지도 베버적 선택적 친화력의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해방이후 한국 종교변동에 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는 1993년 한국정신 문화연구원에서 나온 『현대 한국 종교변동 연구』가 있다. 여기에는 권규식이 「한국종교와 사회변동의 독특성 연구」, 노치준의 「해방후 한국 종교조직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원규의 「해방후 한국인의 종교의식구조 변천연구」 등이 실려 있다.

1970년대쯤부터는 소위 세속화(secularization)의 문제가 종교변동론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이론적인 면에서 서구 종교사회학의 세속화 논쟁이 정리되어 80년대부터 소개되어 왔다. 대표적인 글로는 이원규의 『종교의 세속화』(1987)와 김종서의 「현대 종교사회학의 세속화 이론」(『정신문화연구』 1987) 등이 있다. 좀더 한국적 세속화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사찰의 양적 비대화나 물질주의 등이 주로 매스컴을 통해 고발적인 맥락에서만 거론되었을 뿐, 철저한 경험적 조사연구들을 토대로 이론적인 분석이 행해지지 못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세속화이론 논의에 새로운 큰 전환을 시도한 것은 종교다원화(*religious pluralization*)에 관한 이론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이후 급증하여 많은 자료들이 나왔다. 현대 종교사회학에 종교다원주의 돌풍을 몰고 왔던 버거의 이에 관련된 이론들은 김종서의 「현대 종교다원주의 이론연구 — 피터 버거를 중심으로」(『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 VI)에 간략히 정돈되어 있다. 좀더 한국적인 종교다원성에 대한 논의는 정재식의 「한국: 지속적인 종교혼합」(*Religions and Societies: Asia and the Middle East*)이나 윤이홍의 「한국적 상황과 종교」(『한국종교 연구』)에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적 다원성은 삼국시대때부터 벌써 있어온 셈이지만, 본격적인 한국적 종교다원주의의 시작은 중심종교의 개념이 거의 사라지고 어느 종교라도 자기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적어도 동학이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인도나 중국, 일본 등에도 여러 종교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들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 있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 가장 많은 종교들을 지난 최대 규모의 종교다원주의 국가라고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종교들이 주로 유태-기독교 전통의 큰 틀안에서 다원주의를 구성하고 있다. 일종의 종파적 다원주의(*denominational pluralism*)인 셈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종교다원주의 국가는 역시 한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다원 현상이 반드시 장점만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세계가 전반적으로 종교다원화의 추세에 있으므로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앞서서 미래의 종교상황을 살고 있는 셈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여러 종교들이 경쟁적으로 있다보니 힘겨루기를 하여 종종 종교간 갈등이 있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종교간 갈등에 대한 연구들은 꽤 많은 편이다. 그러나 종교사회학적 시각이 적용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없다.¹³⁾

현대사회에 있어서 세속화와 종교다원화의 즐기찬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보수교회(*conservative churches*)들의 성장과 새로운 성스러움의 출현에 대한 종교사회학자들의 탐구는 또한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수많은 사례연구나 배경연구들이 80년대 이후 학위논문 등에서 등장했다.

13) 종교간 갈등 뿐만 아니라 개신교내의 교파분열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대개가 엄밀한 의미의 종교사회학적 갈등요인 분석 등이 아니라 목회 신학적 논문들이 많다.

또 신흥종교운동의 확산도 1970년대이후 국제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흥종교에 연관된 연구들이 잇따른 현지조사의 결과로 출현하고 있다. 노길명의 「한국 신흥종교운동에 대한 기능론적 전망」(『강남 사회복지대학 논문집』) 등이나 최신덕의 통일교와 순복음교회에 대한 비교연구(*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그리고 김경동의 「신흥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과 프룬너(G. Prunner)의 논문(*Korea Journal*) 등은 아마도 대표적인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학적 시각자체가 그다지 많이 적용되지는 않았다.¹⁴⁾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인 이론화의 경향이 기대된다.

종교의 주변 공동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양영진의 「막스 베버에 있어서 종교와 여타 사회제도간의 관계」(『한국사회학』 1987)가 이런 맥락의 고전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개괄적 연구이다. 좀더 세분하여 들어가면 먼저 종교와 정치에 연관된 주제에 있어서는 현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새롭게 나타나는 국가와 종교간의 관계 유형 연구로서 김종서의 「매개구조로서의 종교」(『정신문화연구』 1986)와 「미국의 공민종교론」(『미국학』 1986) 등이 있다. 또 해외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종교와 정치에 연관된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 셈이다. 전통사회의 불교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순창의 「라말여초의 변동기에 있어서의 정치와 종교」(『日本文化研究所 研究報告』 1986-7)와 길희성의 「한국 역사상의 국가와 승가」(『Korea Journal』, 1981)가 있다. 기독교의 경우는 민경배의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한국종교』 1976)가 개괄적인 논문인데 비해, 최근의 개신교 정치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원규의 「한국개신교의 정치참여」(『한국교회와 사회』)와 김종서의 「정치운동인가 종교운동인가」(『사회와 사상』) 등이 있다. 그리고 이원규의 「한국 종교인의 정치의식」에 의하면 종교인들의 정치적 성향은 종교적 보수인가 진보인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류성민의 『우리나라 종교지도자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1990)에서도 재확인 되고 있다.¹⁵⁾

14) 비록 일제시대 식민지 통치행위의 일부로 조사보고된 것이지만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는 사회적인 측면이 상당히 고려된 연구보고이다. 또 김영식의 「천년왕국운동의 분석을 위한 사회학적 모형 시론」(『연세사회학』, 1985)도 사회학적 시각이 강한 논문이다.

15) 갤럽조사 등에 의하면 대체로 일반인들은 종교인들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부정적

한편 법적인 차원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관련된 수 많은 법정판례를 기초로 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에 벌써 한국종교법학회에서 『종교법판례집』을 내었고 또 문화공보부에서도 『외국의 종교제도』라 하여 해외 종교제도에 관심을 보여 왔다. 또 최종고의 「정교분리 원칙의 한국적 의미」(『현대사회』 1987)나 「한국에 있어서 국가와 종교」(『사상과 정책』 1984) 등의 논문에서 잘 정리되었듯이, 70년대이후 종교의 정치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및 보수세력에서는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파) 기독교 등에서는 종교의 정치참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법제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다. 미국의 철저한 자유주의 원칙이나 일본의 종교법인법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의 법인제도가 허가주의 원칙에 의해 종교단체에 적용되고 있고, 또 불평등하게 불교와 유교 재산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시비가 쟁점으로 되어 있다. 연기영의 「세계의 종교법인법과 한국에서의 재정 가능성」(『현대사회』 1987)과 김종서의 「현대 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정신문화연구』 1992)는 이 문제를 해외사례들과 비교하며 고찰하고 있다.

한편 종교에 대한 국가의 법적 통제형식에 관한 논의들도 비교적 활발한 셈이다. 中井眞孝의 「신라에 있어서 불교통제기관에 대하여」(『朝鮮學報』 1971)라는 논문이 있는가 하면, 中濃教篤의 「조선 ‘황민화’ 정책과 종교」(『世界』 1973)와 장병길의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정신문화연구』 1985) 그리고 박상권의 「일제의 종교정책과 한국종교」(『한국근대종교사상사』) 등 일제시대 종교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다.¹⁶⁾

종교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벌써 50년대부터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번역되었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린(R. W. Green)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나 토니(R. H. Tawney)의 『종교

이지만, 종교인 특히 개신교인 그리고 개신교 종교지도자일수록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기도 한다.

16) 한편 일제시대 한국교회들의 신사참배 거부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순수 종교사회학적 연구들은 아니지만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문제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도 있다. 그리고 당시 한국 불교들의 친일화 거부에 대한 연구 등도 산재해 있다.

와 자본주의의 발흥과 같이 이 주제에 대한 확장된 논의들까지도 번역되었다. 그리고 박영신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재인식」(『현상과 인식』 1980)과 김병서의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교회발전」과 같은 논문들은 기본 시각이 역시 베버적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1992), 『유교와 도교』(1992) 등이 번역되어 나와 있고, 양영진의 「막스 베버의 합리성과 『인도의 종교』」(『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1983)와 유태교 주제를 다룬 김성건의 「베버 종교사회학의 이론적 함축성」(『사회학연구』 1984)은 바로 이런 맥락을 검토한 셈이다.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최근 조혜인은 「세계의 깨: 개신교 윤리 명제의 동적 측면」(『한국사회학』 1996)에서 '개신교 윤리는 서구가 걸어온 합리화 과정의 핵심적 궤적이 등재되어 있는 관리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유교와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제성장과 종교간 연관성의 문제가 최근 지적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주로 근대화와 유교적 공헌논의가 쟁점이 되어 왔다. 먼저 근대화가 반드시 서구화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¹⁷⁾ 또 과연 기독교만이 공헌하였나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유교적 공헌 논의에 있어서 권규식은 『종교와 사회변동』에서 근대화가 반드시 전통적 가치의 붕괴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역시 베버적 시각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국에 있어서 유교윤리는 근대화의 저해요인이었고, 심지어 진보적이고 개방적이었던 개신교윤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윤리의 영향을 받아서 보수화되어 버렸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박영신은 「한국의 전통 종교윤리와 자본주의」(『한국종교와 사회변동』)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록 전통적 생활양식은 더욱 강화됨을 주장한다. 특히 이동인은 「한국근대화 과정에서의 유교적 가치」(『한국종교와 사회변동』)에서 유교적 가치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며, 무엇보다도 여러 가치들의 母 가치(pool)로서 유교의 근대화에의 공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동아시아 경제 발전과 유교」(『한국사회학』 1997)에서 국민호는 유교의 역할이 한 사회내에서도 역사적 경험과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신중론을 폄고 있기도 하다.

17)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반성이 있었다. Hideo Kishimoto, "The Problem of Religion and Modernization in Japan", *Contemporary Religions in Japan*, 1/3(1960): 1-19.

이외에 종교와 경제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의 재정구조의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노치준이 「한국교회 재정구조의 사회학적 연구」(『기독교사상』 1983-4)를 비롯하여 다양한 논문들을 써 왔다. 불교 사찰의 재정문제에 초점 맞추어진 것으로는 김종서의 「종교단체의 합리적 재산관리」(『다보』 1992)가 있다.

또 종교와 계층문제에도 종교사회학적 연구들이 경험적 조사들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황성모는 「기독교의 유입과 그 후(1905-1945)」(『한국의 사회와 문화』 1988)에서 기독교가 계급주의적이라는 비판과 계급타파의 선구라는 이중적 시각들이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의 상황은 제도종교에는 부유층이 많아서 한국교회 자체가 점차 더욱 중산층화되고 있음이 김병서의 「종교, 정치, 계층의 상관성」(『현대사회와 종교』 1987)에서 지적되었다. 또 이원규의 「계층별 의식구조와 전환시대의 기독교」(『한국교회와 사회』)에서도 대체로 하류층이나 상류층보다 중류층일수록 종교의식이 적극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5. 결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사회 전반에 실증주의적 성향이 팽배함에 따라서 경험적 방법론을 토대로 한 종교사회학적 연구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연구업적들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또 질적으로도 전에 비하여 훨씬 나아지고 있음에서 실감할 수 있다. 다만 좀 더 발전적인 안목의 도입을 바라면서 끝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첫째, 종교적 시각과 사회적 시각의 균형이 절실히 요청된다. 종래의 많은 종교사회학 책들이 너무 하찮은(?) 사회학적 이론들에까지 집중한 나머지 종교사회학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들의 실제양상에 관한 정보들을 종종 간과해온 점은 무척 안타깝다. 그러므로 실로 엄청난 기준의 종교사회학적 업적들이 등장했지만, 종교학계에서는 제한된 관심만이 기울여져 왔다.¹⁸⁾ 우선 대부분 종교사회학자들이 주로 사회학쪽에서 훈련된 사람들이라서 사회학적인 면에서는 매우 풍부한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지만, 반면

에 이들이 종교자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이해(pre-understanding)는 매우 약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종교자체에 관한 인용은 대체로 학부 저학년생의 개론서 수준을 못넘어 가면서 사회학적 이론은 최근 학술잡지의 첨단 주장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불균형이다.

또 반면에 종교들의 실제 양상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현상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이론적 체계화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 관한 종교사회학적 연구들은 사회학적 시각이 거의 없어 신학논문과 거의 구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그동안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있었던 신흥종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복만 종교사회학적일뿐 사실상 사회사 논문이나 종교철학 논문이라고 분류될 수밖에 없는 글들이 대부분인 셈이다.

둘째, 교구사회학(내지 기독교사회학)을 극복해야 한다. 예컨대, 교회-교파이론(Church-sect theory)은 동양종교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다. 또 서구식 자기확인 방법에만 의존해 종교인구조사를 실시하면 한국에서는 올바른 유교인구를 측정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나 유교 및 여러 신흥종교 현상들을 나름대로 기준의 사회학적 연구들과 연관시키며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고안해낼 필요성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들의 종교적 독특성이나 비서구적 특성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한국적 종교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업적들을 가능한 수렴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종교사회학관계 논저들은 번역된 서구이론을 가지고 서구현상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어 왔다. 한국적 종교사회에 관한 논의들이 거의 취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를 위한 진정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단순한 번역 종교사회학을 넘어서 진정한 한국적 종교사회학을 추구하려면 먼저 한국적 문헌자료와 한국적 현상 자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정리검토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1997. 6.30).

18) 이러한 사회학자들의 종교연구는 종교 그 자체의 의미에 대한 연구이기보다는 주로 사회학적 관심으로부터의 분석이므로 흔히 사회학적 환원주의(즉 sociologism, sociological religion)로 훌러 버리는 경향이 있음을 종교학자들은 비판해 왔다.

부록: 현대 한국 종교사회학 관계문헌 총목록¹⁹⁾

- 강돈구, 「신종교연구 서설」, 『서울대 종교학연구』 6(1987. 4): 181-223.
- 강문하, 「敎會財政管理와 支出<特輯>」, 『牧會』 62(1981. 10): 38-43.
- 강신안, 「한국 농촌 교회성장의 저해 요인과 해결 방안」(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1980
- 강영경, 「신라 전통신앙의 정치 사회적 기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강인철, 「한국개신교교회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1945-196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 국민호, 「동아시아 경제 발전과 유교」, 『한국사회학』 31(1997. 봄): 29-59.
- 권규식, 「막스웨버의 유교관」, 『동양문화연구』, 1집(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4): 197-207.
- _____, 「고대 유대교의 종교 윤리적 구조」, 『교육대학원 논문집』, 8집(경북대학교, 1977): 71-77.
- _____, 「유교 윤리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문리학총』, 6집(경북대학교 문리과 대학, 1979): 15-30.
- _____, 「종교 윤리와 일본의 근대화」, 『경북대학교 논문집』, 27집(1979): 1-12.
- _____, 「New Religious Movements in Korea」, 『사회문화논총』, 2(1982. 2): 117-122.
- _____, 「종교와 사회변동 -막스웨버의 종교사회학」, 대구: 형설출판사, 1983.
- _____, 「웨버의 한국 사회관」, 『종교와 사회변동』, 서울: 형성출판사,

19) 지면 관계상 후에 단행본으로 모아 출판된 논문들은 이중재제하지 않음. 한편 아주 최근 인터넷 웹 사이트(web site)에는 주로 미국과 일본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는 종교사회학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학파 일(Sociofile)」과 같은 씨디롬(cdrom) 자료들은 한국어로 된 종교사회학 관계 일부 정보들까지도 영문으로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사회학 관계 데이터 베이스(database)의 철저한 구축은 국내외 학계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 1983, pp.209-213.
- _____, 「古代 유대교의 宗教倫理的 構造」, 『基督教思想』 299(1983. 5): 133-144.
- _____, 「解放神學運動의 社會學的 意義」, 『慶北大平和研究』 9(1984. 3): 159-210.
- _____, 「미국의 시민종교론; R. Bellah의 소론을 중심으로」, 『현대와 종교』 8 (1985. 2): 81-100.
- _____, 「한국종교와 사회변동의 특수성 연구」, 권규식 외,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1-72.
- 금장태, 「社會變動과 儒教의 역할」, 『思想과 政策』 3(1984. 6): 81-93.
- _____, 「한말 일제하 한국 성리학파의 사상계보와 문헌에 관한 연구」, 『철학사상의 제문제 II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pp.209-242.
- 김한구, 「동학의 종교 사회학적 연구」, 『신학사상』, 6(1989): 1020-1045.
- 김경동, 「신흥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동산 신태식박사 송수기념논총』, 1969, pp.369-383.
- 김경진, 「북한의 종교정책에 대한 소고」, 『총신대학원학회논단』, 2(1985. 9): 117-131.
- 김광명, 「재판운동과 제도; 종교재판 제도 소고」, 『초교파』, 99(1986. 8): 62-70.
- 김광억, 「사회변동과 종교운동」, 『신인간』, 408(1983. 5): 52-59.
- _____, 「도시중산층의 종교생활」,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p.175-231.
- 김기일, 「교회조직 개발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 대학원, 1985.
- 김남식, 『일제하 한국교회 소종파운동연구』, 새순출판사, 1987.
- 김명희, 「여성 성직자의 현황과 문제」, 『기독교사상』 371(1989): 64-76.
- 김민배, 「종교의 자유의 법적 한계에 관한 소고; 한국의 현실을 중심으로」, 『법정대학보(인하대)』, 1(1982. 2): 92-116.
- 김병로, 「일본인의 종교의식」, 『목회』, 100(1984. 12): 214-218.
- 김병서, 「한국社會와 基督教<특집>」, 『現代宗教』 111(1982. 9): 35-43.
- _____, 「韓國 社會變動과 기독교백년; 갈등 사회학적 고찰」, 『基督教思想』

- 318 (1984. 12): 20-34.
- _____, 「종교, 정치, 계층의 상관성」, 『현대사회와 종교』, 그리스도 철학연구소편, 1987, pp.115-142.
- 김병호, 「社會豫算의 문제점은 없는가; 교회 예산의 外向的인 수립문제」, 『超教派』 92(1985. 11): 67-71.
- 김선흥, 「종교의 자유에 관한 고찰」(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67.
- 김성건, 「종교의 사회정의 구현; 종교의 사회적 역할 <특집>」, 『종교와 윤리』(1978. 4): 31-36.
- _____, 「종말론 대두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 최근 한국에 등장한 시한부 종말론을 중심으로」, 『신학사상』 74(1990): 744-765.
- _____, 「종교와 이데올로기」, 민영사, 1991.
- _____, 「또그빌과 미국의 시민종교」, 『한국사회학』 28(1994, 가을): 163-186.
- 김영상, 「敎會財產 관리」, 『牧會』 86(1983. 10): 85-89.
- 김영식, 「한국에 있어서의 종교사회학의 연구현황」, 『사회학연구』, 2(1984): 251-281.
- _____, 「천년왕국운동의 분석을 위한 사회학적 모형 시론」, 『연세사회학』, 6(1985. 6): 23-58.
- 김영주, 「농민신학 형성을 위한 사회학적 접근」(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1985.
- 김윤태, 「교회 행정가로서 목사의 직능」(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1981.
- 김정주, 「한말 東學과 基督教主導層의 男女平等觀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8.
- 김조년, 「Religionskritik bei Feuerbach」, 『한남대논문집(인문과학)』, 16(1986. 4): 17-32.
- 김종서, 「국민사상 정립과 종교의 역할」, 『국민사상정립에 있어서의 과학성과 이념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p.156-168.
- _____, 「매개구조로서의 종교; 적극적 종교정책을 위한 제언」, 『정신문화연구』 29(1986. 6): 131-142.
- _____, 「미국의 공민종교론」, 『서울대 미국학』 9(1986. 12): 25-40.

- _____, 「현대사회와 종교의 역할」, 『현대사회』 25(1987. 4): 26-41.
- _____, 「세속화론의 종교사회학적 조명; 고전적 모델들을 넘어서」, 『정신문화연구』, 32(1987. 5): 185-202.
- _____, 「현대 종교사회학의 세속화이론」, 그리스도교철학연구소편, 『현대사회와 종교』, 서울: 서광사, 1987, pp.187-209.
- _____, 「신흥종교의 사회적 문제」, 『경향잡지』(1988. 6): 40-43.
- _____, 「종교의 현실참여 논쟁 — 정치운동인가 종교운동인가」, 『사회와 사상』(1990. 1): 201-210.
- _____, 「현대 종교조직의 유형론 연구 — 교회-교파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4(1990. 12): 97-113.
- _____, 「현대 종교다원주의의 이론연구 — P. Berger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VI)』, 1990, pp.159-189.
- _____, 「현대 종교조직의 유지이론 연구」, 『정신문화연구』, 14/2(1991): 105-120.
- _____, 「해외사례를 통해본 종교법제의 문제: 종교단체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종교사회연구소편, 『한국의 종교와 종교법』, 서울: 민족문화사, 1991, pp.37-47.
- _____, 「현대 종교법제의 이론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15/1(1992. 3): 165-181.
- _____, 「종교단체의 합리적 재산관리」, 『다보』 3(1992. 9): 24-31.
- _____, 「버거 종교변동론의 이론적 기초」, 권규식 외,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233-270.
- _____, 「현대사회의 정교관계 이론연구」, 『정신문화연구』, 16/1(1993. 3): 93-107.
- _____, 「한말 일제하 한국종교 연구의 전개」, 『한국사상사대계』 제6권,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243-314.
- _____, 「현대 종교사회학의 의미와 연구방법」, 『정신문화연구』 16/4(1993. 12): 127-141.
- _____, 「현대 신종교 연구의 이론적 문제」, 김종서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p.1-48.
- _____, 「우리사회와 종교: 이론적 관심의 문제」, 한국사회이론학회엮음,

- 『종교와 우리사회』, 1995, pp.35-42.
- _____, 「사회적 맥락에서 본 종교」, 『종교와 문화』 1(1995. 12): 109-124.
- _____, 「한국 종교사회학의 발달과 당면과제」, 『종교학연구』 14(1995. 12): 19-50.
- _____, 「미국적 신앙의 뿌리와 공민종교의 성립」, 『종교학연구』 15(1996. 12): 1-15.
- _____, 「사회유형과 종교형태의 상관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종교와 문화』 2(1996. 12): 93-109.
- 김중기,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유형론적 분석」, 『延世論叢』 20(1984. 3): 113-127.
- 김철호, 「종교의 정의와 사회적 관계: 종교의 사회적 역할 <특집>」, 『종교와 윤리』 6(1978. 4): 27-30.
- 김충수, 「基督教와 教派主義: 교파주의란 기독사상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超教派』 35(1980. 6): 6-7.
- 김태곤, 『韓國巫俗研究』, 서울: 집문당, 1981.
- 김태진, 「종교의 자유와 그 제한에 관한 연구」, 『단국대교육논총』 1(1985. 3): 139-148.
- 김항제, 「교회-종파유형의 입장에서 본 개혁교회 발전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한신대학 대학원, 1981.
- 김호기,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유교의 역할」, 유석춘 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서울: 나남, 1992.
- 노길명, 「한국 신홍종교 조직체의 형성 배경에 관한연구」, 『인간과 미래』, 4집(중앙신학교, 1976).
- 노길명(최신덕과 함께), 「해방 이후 한국 종교계의 변동과정」, 『한국사회학』, 10집(1976): 97-123.
- 노길명, 「증산교 발생 배경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증산사상연구』, 2집 (1976): 19-44.
- _____, 「신홍 종교 창시자와 추종자의 사회적 배경과 그들간의 관계—증산교를 중심으로」, 『증산사상연구』, 3집(1977): 137-167.
- _____, 「한국 사회와 신홍종교: 역사·사회·의식 <특집>」, 『高大文化』, 18(1978. 5): 39-47.

- _____, 「한국 신종교운동에 대한 기능론적 전망」, 『강남 사회복지대학 논문집 제9집』(1981): 235-252.
- _____, 「가톨릭과 韓國社會發展」, 『가톨릭社會科學研究』 2(1983).
- _____, 「개화기의 한국 가톨릭교회와 국가간의 관계」, 『가톨릭社會科學研究』 4(1987).
- _____, 「개화기 및 일제시대 한국천주교회의 성격과 사회활동」, 『교회와 역사』 146(1987)
- _____,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서울: 빅벨출판사, 1988.
- _____, 「통일교의 경제활동과 그 ‘원리적 배경」, 『종교신학연구』 2(1989).
- 노재기, 「종교법인법 제정의 당위성」, 『종교와 윤리』, 3(1977. 7): 53-56.
- 노치준, 「日帝下 韓國改新教運動의 社會學的研究: 1926·30年代를 中心으로」, 『韓國社會學研究』 6(1982. 12): 137-172.
- _____, 「韓國教會 財政構造의 社會學的研究 I.」 『基督教思想』 305(1983. 11): 122-138.
- _____, 「韓國教會 財政構造의 社會學的研究 II.」 『基督教思想』 307(1984. 1): 155-173.
- _____, 「韓國教會 財政構造의 社會學的研究 III.」 『基督教思想』 308(1984. 2): 149-166.
- _____, 「韓國教會의 不信은 어디서 오는가」, 『新東亞』 299(1984. 8): 358-367.
- _____, 「개신교회의 재정구조와 그 방향」, 『사상과 정책』 1/3(1984): 54-69.
- _____, 「한국교회의 個教會主義에 관한연구」, 『基督教思想』 329(1986. 5): 80-105.
- _____, 「뒤르케임과 베버의 종교사회학」, 『사회학연구』 5(1988).
- _____, 「일제하 한국장로거 총회 통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연구회,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 _____, 「해방 후 한국 종교조직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권규식 외, 『현대 한국종교변동 연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73-160.
- 류근종, 「한국교회의 교회관리에 대한 연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신원, 1971.

- 류성민, 「『세속화』와 도덕성;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적 정황을 중심으로」, 『서울대 종교학연구』 5(1985. 7): 187-210.
- _____, 「종교인들의 사회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비종교인과 종교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사회 연구소 연구 보고서』, 1989.
- 류종숙, 「목회자의 교회정치에 관한 연구—교회행정을 중심으로—」(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1984.
- 류지웅, 「일제하 개신교의 분파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마효락, 「교회조직의 원리 및 실제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1982.
- 명성여자고등학교, 「무종교인의 교회에 관한 연구」 서울, 1987.
- 문상희, 「신종교의 구조와 사상 <특집>」, 『현대종교』, 141(1985. 9): 46-54.
- _____, 「신흥종교의 실태와 문제점」, 『기독교사상』, 346(1987. 10): 123-129.
- 문영일, 「敎會와 錢, 錢과 社會」, 『超敎派』 80(1984. 10): 28-35.
- 문화공보부, 「종무행정자료」, 1988.
- _____, 「외국의 종교제도」, 1989.
- _____, 「한국의 종교」 서울, 1989.
- 민경배,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한국종교』 3(1976): 19-29.
- _____, 「한국기독교회기독교사회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민병찬, 「교원의 종교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전주교대논문집』, 18(1982. 5): 159-183.
- 박근원, 「敎會職制의 役割과 權威 <特輯>」, 『基督教思想』 293(1982. 11): 40-50.
- 박길영, 「70년대의 종교 성장과 앞으로의 전망」,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한국사회학회편, 현대사회연구소, 1983): 85-106.
- 박도식, 「칼 막스의 종교이론」, 『신학전망』, 43(1978. 12): 161-166.
- _____, 「칼 막스의 종교이론; 막스의 네 가지 '종교개념」, 『신학전망』, 45(1979. 6): 149-154.

- _____, 「칼 막스의 종교이론」, 『신학전망』, 47(1979. 12): 135-147.
- _____, 「칼 막스의 종교이론; 종교적인 소외」, 『신학전망』, 50(1980. 9): 155-164.
- 박상권, 「일제의 종교정책과 한국종교」, 『한국근대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 163-180.
- 박성인, 「교회조직 관리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한신대학 대학원, 1984.
- 박성환, 「한국의 문화발전과 종교적 변용」, 『한국사회학』 28(1994, 겨울): 53-84.
- 박영례, 「성차별의 정당성 장치로서의 종교제의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제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종교학연구』, 5(1978. 1): 53-106.
- 박영신,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재인식」, 『현상과 인식』, 4권 4호(1980): 89-106.
- _____, 「한국 근대사회변동과 기독교」, 『基督教思想』 313(1984. 7): 122-132.
- _____, 「한국의 전통 종교윤리와 자본주의」,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국의 종교와 사회변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7, pp.151-169.
- _____, 「기독교와 사회발전」, 이원규 편,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나단출판사, 1992, pp.347-359.
- 박인철, 「여성신도들이 교회성장에 미친 현황 조사 연구(서울 S.D.A. 교회의 여성신도 중심)」(학위논문), 삼육대학 대학원, 1987.
- 배용광, 「종교의 본질 1—두 사회학자의 종교 본질관」, 『사회문화논총』, 칭간호(1978): 9-24.
- _____, 「종교의 본질 2—두 사회학자의 종교 본질관」, 『문리학총』, 제6집(경북대학교 문리과대학, 1979): 1-14.
- 변동걸,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경사 이희창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간행회 편, 『법과 정의—이희창 대법관판결의 연구』, 서울: 박영사, 1995.
- 서영대, 「한국 고대의 종교전문가」, 『인하』 20(1984): 382-396.
- 서우석, 「중산층 대형교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한국사회학』 28(1994, 여름): 151-174.
- 서정운, 「한국교회의 구조적 문제성」, 이원규편,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 나단출판사, 1992, pp.362-384.
- 설봉식, 「한국개신교인의 윤리성향에 관한연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 성락승, 「한국정부의 종무행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0.
- 성병희, 「제례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여성문제연구』 12집,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3, 99-108.
- 손봉호, 「종교의 사회적 역할」, 『현대사회』 장간호(1981. 4): 203-213.
- 송천은, 「종교사회학의 신진학론적 분석; Robert N. Bellah의 입장을 중심으로」, 『원광대학논문집(인문사회계열편)』 16(1982. 10): 1-26.
- 신일철, 「종교의 사회적 기능」, 『신인간』, 396(1982. 3): 34-45.
- 신준식, 「Max Weber의 종교기능론」, 『대구대 사회문화연구』 3(1984).
- _____,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재해석과 그 비판」,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7.
- _____, 「Max Weber의 근대자본주의 성립론에 관한 연구」, 『유시중박사 정년기념 논총』, 1991.
- _____, 「Max Weber의 유교론에 관한 연구」, 『이순구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92.
- 신중석, 「한국기독교의 전파과정과 지역유형」, 『한국문화역사자리연구회』, 1990.
- 안병무 편, 『사회학적 성서해석』, 한국신학연구원, 1983.
- 양 건, 「현대 국가와 종교」, 『신동아』 224(1983. 4): 211-220.
- 양미강, 「일제하 한국기독교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1989.
- 양영진, 「Max Weber의 합리성과 『인도의 종교』」,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이만갑 교수 회갑기념논총』,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편, 서울: 범문사, 1984, pp.537-570.
- _____, 「막스 베버에 있어서 종교와 여타 사회제도간의 관계」, 『한국사회학』 21(1987. 10): 1-19.
- _____, 「사회제도의 원천으로서의 종교: 뒤르켐의 종교사회학에 대한 일고찰」, 『사회 변동과 사회인식』, 서울: 전예원, 1988, pp.293-315.

- _____, 「종교집단에 대한 일고찰: 베버와 뒤르켐의 비교」, 『한국사회학』 23(1989): 13-36.
- _____, 「뒤르켐의 종교사회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pp.187-215.
- _____, 「뒤르켐 종교사회학 저술들의 내적 연관성 (1)」, 『동국 사회 연구』 1(1992): 195-217.
- _____, 「뒤르켐의 종교의식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학』 26(1992): 121-144.
- _____, 「막스 베버의 종교사회학의 일고찰」, 전성우 편, 『막스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서울: 민음사, 1995, pp.393-425.
- 양은용, 「대학생의 종교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II; 원불교 예비교역자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 10 · 11 합(1987. 6): 775-798.
- 엄묘섭, 「E. Durkheim과 M. Weber의 종교관」, 『사회문화논총』, 2(1982. 2): 55-70.
- 연기영, 「세계의 종교법인법과 한국에서의 제정 가능성」, 『현대사회』, 25(1987. 4): 83-99.
- 오경환, 「종교와 정치」, 『기톨릭대논문집(신학부)』, 4(1978. 6) 121-152.
- _____, 「종교의 사회학적 정의」, 『신학전망』, 42(1978. 9): 118-137.
- _____, 『종교사회학』, 서울: 서광사, 1979, 개정판, 1990.
- _____, 「제도적 종교와 사회 변동의 촉진」, 『기톨릭대학 논문집』, 6집 (1980): 1-27.
- _____, 「제도적 종교와 사회변동의 촉진」, 『기톨릭대 논문집』, 6(1980. 12): 57-83.
- 오용부, 「한국사회변동이 도시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1988.
- 원석조, 「대학생의 종교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I; 원광대학생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 10 · 11 합(1987. 6): 725-773.
- 유근종, 「한국교회의 교회관리에 대한 연구」(학위논문), 연합신학대학원, 1972.
- 유석준 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서울: 나남, 1992.
- 유순하, 「장로교 조직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 1975.
- 윤경로, 「통감부시기 日帝의 基督教政策과 朝鮮傳道論」, 『민족문화』 4, 민족문화추진회, 1989.
- 윤승용,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반응형태연구 — 산업화이후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윤이흠, 「한국의 종교적 현황과 다종교사회의 문제」, 『사상과 정책』 3(1984. 6): 137-145.
- _____, 「한국인 종교적 심성의 근원: 종교 인구 통계 조사의 허설」, 『정경문화』, 245(1985. 7): 378-387.
- 윤이흠 외, 「종교조사의 방법론 개발과 한국인의 종교성향」, 『한국종교의 이해』, 집문당, 1985, pp.343-371.
- 윤이흠, 「종교인의 현실참여와 현대사회 규범 <특집>」, 『자유공론』, 225(1985. 11): 90-99.
- _____, 「한국적 상황과 종교」, 『한국종교 연구』, 서울: 집문당, 1986, pp.201-246.
- 이 경, 「한국 관서지방에 있어서의 기독교 발흥 요인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76.
- 이경제, 「종교인의 의식조사」, 『통일세계』, 124(1981. 3): 14-15.
- 이광린, 「개화기 관서지방과 改新教 — 改新教 受容의 사례 —」, 『논문집』 제5집, 숭전대학교, 1974.
- _____, 「개화기 관서지방과 개신교」,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 이기백, 「新羅時代의 佛教와 國家」, 『歷史學報』 111(1986. 9): 199-218.
- 이덕승, 「社會財產의 法的 性格」, 『上智實專論文集』 16(1986. 12): 439-464.
- 이동인, 「유교와 근대화: Max Weber의 유교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 사회학연구』 8(1985): 7-28.
- _____, 「유교의 합리성과 근대화」, 『정신문화연구』 29(1986).
- _____, 「한국근대화 과정에서의 유교적 가치」,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의 종교와 사회변동』,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7, pp.170-225.
- _____, 「종교이데올로기와 사회발전: 동아시아의 경우」,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사회사 연구와 사회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1.
- 이삼열, 「基督教와 國家」, 『基督教思想』 317(1984. 11): 46-69.

- 이상용, 「지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간에 상호이해와 협력과 갈등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8.
- 이영관, 『벨라의 종교관과 한국종교』, 원불교출판사, 1992.
- 이옥영, 「社會豫算編成의 패턴 <特輯>」, 『牧會』 62(1981. 10): 26-37.
- _____, 「敎會財務管理의 效率化」, 『牧會』 86(1983. 10): 90-98.
- 이원규, 『종교의 세속화』,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7.
- _____,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_____,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 _____,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나단출판사, 1992.
- _____, 「해방 후 한국인의 종교의식구조 변천연구」, 권규식 외, 『현대 한국 종교변동 연구』, 경기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161-232.
- _____,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울: 성서연구사, 1994.
- 이을호, 「현대사회와 유교 <特輯>」, 『廣場』 116(1983. 4): 134-139.
- 이장식, 「종교와 정치」, 『기독교사상』, 256(1979. 10): 149-162.
- 이종수, 「유교와 프로테스탄티즘의 합리주의」, 『현상과 인식』 10/3(1986): 9-29.
- 이준동, 「解放神學의 社會分析視角에 관한 研究」, 『誠信女大研究論文集』, 25(1987. 2): 249-274.
- 이태재, 「종교와 국가: 종교와 국민윤리 <특집>」, 『현대사조』, 13(1978. 12): 134-138.
- 이현종, 「구한말 서구계 종교의 포교현황」, 『梨大史苑』 9집, 이대사학회, 1970, 19-49.
- 이형국, 「서평: 한국종교법학회 편, 『종교법판례집』」, 『신학지남』 196(1983. 6): 196-198.
- 이호정, 「교회 재정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한신대학 대학원, 1984.
- 이화선, 「社會와 政治: 解放神學을 중심으로」, 『政經文化』 176(1979. 10): 170-182.
- 이흔경, 「한국 근대화의 종교적 이론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Max Weber의 이론에 중심하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1973.
- 임원규, 「현대 사회와 종교—Peter L. Berger의 종교사회학을 중심으로—」

- (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 1984.
- 임원준, 「교회재정에 관한 분석」(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1981.
- 임은경, 「한국교회 대학생의 신앙유형과 가치관의 관계 — 서울지역교회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임준선, 「교회 지도력에 관한 연구(교회행정 지도자를 중심으로)」(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1986.
- 임희섭, 「미국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의 종교의 영향」,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한국사회개발연구』 14(1985): 25-66.
- _____, 「한국의 사회복지와 종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한국사회개발연구』 17(1987): 47-96.
- 장병길,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정신문화연구』, 25(1985. 6): 49-60.
- 장 익, 「비교종교학의 진단; 처어치와 섹트」, 『초교파』, 13(1978. 5): 31-33.
- 장철수, 「신앙촌락의 구성과 인간 관계」(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7.
- 정경수, 「한국교회 종파운동에 관한연구 — 그 시작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1990.
- 정동화, 「한국교회의 현금과 재정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1984.
- 정미자, 「현대 한국교회와 여교역자(여교역자의 위치와 역할을 중심으로)」(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1984.
- 정연선, 「한국 신흥종교의 정치사회관에 관한 연구; 구한말에서 일제기까지」, 『행정논총(청주대)』 5(1982. 2): 27-41.
- 정재식, 「장래를 위한 종교 — 근대성의 위기를 넘어서」, 『현상과 인식』 3권 2호(1979): 42-61.
- _____, 「동양사회의 인식 — 비교 역사적 종교 사회학의 시각」, 『현상과 인식』 4권 4호(1980): 129-146.
- _____, 「종교와 사회 변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 _____, 「전통과 근대성 — 비교 종교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신학논단』, 15집(문상희교수·유동식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982): 337-358.
- _____, 「종교와 사회행위의 이론」, 『종교와 사회변동』, 서울: 연세대출판부,

- 1982, pp.11-24.
- _____, 「현대 문화와 종교의 변동」, 『신동아』 224(1983. 4): 221-228.
- 정재식 외, 「종교의 사회적 기능과 과제」, 『사상과 정책』 3(1984. 6): 6-25.
- 정진경, 「종교인의 사회참여 문제; 반응 시국 세미나 <특집>」, 『자유공론』 154(1979. 11): 89-95.
- 정진홍, 「종교와 카리스마; 종교현상학적 시각에서의 시론」, 『사상과 정책』 3(1984. 6): 118-130.
- 정창수·김신열, 「한국에 있어서 종교인구 분포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사회학적인 연구」, 『한국사회학』 27(1993, 여름): 117-151.
- 조 광, 「조선 후기의 종교운동과 민중 <특집>」, 『서강』 14(1984. 11): 28-36.
- 조혜인, 「세계의 깨: 개신교 윤리 명제의 동적 측면」, 『한국사회학』 30(1996. 봄): 31-64.
- 주명훈, 「한국 장로교 조직의 확립과정」(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69.
- 주영흠, 「韓國社會와 宗敎의 痘理現象<특집>」, 『現代宗教』 111(1982. 9): 35-43.
- 지학순, 「종교의 사회참여」, 『정우』, 50(1986. 7): 60-66.
- 진영석·장성만, 『현대 종교 사회학』, 태화출판사, 1981.
- 진영식, 「효과적인 교회관리 연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 대학원, 1984.
- 차기선(Deschamps, Christian), 「민간신앙의 형태와 특성—경상북도 일개동리의 사례연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2.
- 차성환, 『한국종교사상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 채기은, 「종교와 정치분리: 사회와 국가 <특집>」, 『현대사조』, 23(1979. 10): 12-16.
- 천성창, 「한국개신교의 急成長에 대한 社會學的 研究」, 『超教派』 74(1984. 3): 41-44.
- 최신덕, 『신흥 종교집단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 참빛사, 1975.
- _____, (노길명과 함께) 「해방 이후 한국종교계의 변동과정」, 『한국사회학』, 10집(1976): 97-123.
- _____, 「S교회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13집(1979): 49-77.

- 최용록 외, 「종교와 사회; 종교와 국가 <좌담>」, 『월간조선』, 3, 5(1982. 5): 46-62.
- _____, 「종교의 사회적 책무와 국가 <좌담>」, 『아시아공론』 117(1982. 7): 89-103.
- 최재석, 「신앙촌락의 연구」, 『아세아 연구』, 2/1(1956): 143-177.
- _____, 「충청남도 신도내 ‘계룡산’의 종교집단의 구성」(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56.
- 최종고, 「정교분리 원칙의 한국적 의미」, 『현대사회』 25(1978. 4): 42-55.
- _____, 「국가법의 종교법 <특집>」, 『인하』, 19(1983. 2): 24-32.
- _____, 「한국에 국가와 종교; 종교법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상과 정책』, 3(1984. 6): 39-53.
- _____, 「한국에 있어서 국가와 종교」, 『사상과 정책』 1/3(1984 여름): 39-53.
- _____, 「한국의 종교판례와 종교입법」, 『판례월보』, 153(1983. 6): 7-9.
- 최종철, 「한국 기독교 교회들의 정치적 태도, 1972-1990: 종교 집단의 정치적 이견에 대한 하나의 사회학적 해석」, 『경제와 사회』 15(1992): 205-225.
- 탁명환, 『한국의 종교정책 연구』, 서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1980.
- 한상범, 「종교인의 사회참여 문제」, 『법률』 134(1980. 4): 75-79.
- _____, 「한국의 종교와 법률문제」, 『판례월보』, 170(1984. 11): 11-18.
- 한상복, 「한국 산촌주민의 의식과 신앙」, 『한국사회학』, 2(1966): 84-100.
- 한완상, 「韓國敎會의 量的成長과 敎人們의 價値觀: 永樂敎會를 中心으로」, 『崇田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7, 1(1977. 5): 363-382.
- _____, 「교회 양적 급성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크리스챤아카데미, 대화출판사, 1981, pp.165-231.
- 한학수, 「한국교회 행정의 발전에 관한 연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대학원, 1986.
- 한홍식, 「힌두교의 救援論: M. Weber의 觀點에서」, 『陸軍第三士官學校論文集』 11(1980. 3): 59-75.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서울, 1984.
- _____, 「한국인의 종교와 의식구조」, 서울,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변동과 한국종교』, 1987.
- 한국종교법학회, 『종교판례집』, 육문사, 1982.
- 허남린, 「최근 한국 개신교 성장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大宗教學研究』 5(1985. 7): 107-186.
- 홍육화, 「한국 여성의 아노미와 종교성에 관한 연구—개신교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한국사회학』 28(1994, 가을): 143-162.
- 홍종필, 「만주 조선인 종교문제 소고」, 『백산학보』 33(1986), 229-245.
- 홍치모, 「朝鮮總督府의 宗教政策과 日本組合敎會」, 『總神』 4(1982. 2): 36-52.
- 황교안, 『검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서울: 만나, 1994.
- 황선명, 「종교의 사회통제에 관한 소고」(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5.
- _____, 『조선조 종교사회사 연구』, 서울: 일지사, 1985.
- 황성모, 「기독교의 유입과 그 후 (1905-1945)」, 『한국의 사회와 문화(제9집): 식민시대의 사회체제와 의식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p.3-59.
- _____, 「한말의 종교적 상황」, 고범서 편, 『상황과 종교』, 서울: 범화사, 1984, pp.221-267.
- Baum, Gregory, *Religion and Alienation —A Theological Reading of Sociology*. New York: Panlist Press, 1975, 이원규 옮김, 『종교와 소외』,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3.
- Bellah, Robert N., *Beyond Belief*, New York: Harper & Row, 1970, 박영신 옮김, 『사회변동의 상징구조』, 서울: 삼영사, 1981.
- _____, *Beyond Belief*, New York: Harper & Row, 1970, 진영석 옮김, 『사회 윤리와 종교』, 대구: 형설출판사, 1982.
- _____, *Tokugawa Religion*, New York: The Free Press, 1957, 박 영신 옮김, 『도쿠가와 종교』, 서울: 현상과 인식, 1994.
- Berger, Peter L., *A Rumour of Angels — Modern Society and the Rediscovery of*

- the Supernatural, 김쾌상 옮김, 『현대사회와 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_____, The Social Reality of Religion or The Sacred Canopy, 이양구 옮김, 『종교와 사회』, 서울: 종로서적, 1981.
- Berger, Peter L., The Heretical Imperative, 서광선 옮김, 『이단의 시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1.
- Bermann, Harold, 김철 역, 『종교와 제도』, 서울: 민영사, 1992.
- Cassidy, R. J., 한완상 역, 『예수, 정치, 사회』,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Ch'oe Chong-go, "Church and State in Korea", *Korea Journal* 21/12(1981): 13-31.
- Choe Young-ho, "Christian Background in the Early Life of Kim Il-Sung", *Asian Survey* XXVI/10(1986): 1082-1091.
- Choi Syn-Duk, "A Comparative Study of two New Religious Move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fication Church and the Full Gospel Central Church", In Beckford, J. A. ed., *New Religious Movements and Rapid Social Change*, 1986, pp.113-145.
- Chung Chai-sik, "Korea: The Continuing Syncretism", In Calderola, C., *Religions and Societies: Asia and Middle East*, N.Y.: Mouton Publishers, 1982, pp.607-628.
- Gerth and Mills, *From Max Web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임영일, 차명수, 이상률 편역, 『막스 베버 선집』, 서울: 까치, 1991.
- Durkheim, Emile, *Les Formes Elementaries de la Vie Religieuse*, 노치준과 민혜숙 공역,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서울: 민영사, 1992.
- Green, Robert W. ed, *Protestantism and Capitalism — The Weber Thesis and Its Critics*, 이동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서울: 종로서적, 1981.
- Hammond, P. E., 「종교적 다원론과 사회질서」, 『광장』, 113(1983. 1): 94-101.
- Hardacre, H., "Korean Temples in the Osaka Area", *The Religion of Japan's Korean Minorit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Koh Hesung Chun, "Religion and Socialization of Women in Korea", *Senri Ethnological Studies* 11(1984): 237-257.
- Kee, H. C., 서중석, 김명수 역, 『그리스도교 기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Kelly, Dean M., *Why Conservative Church are Growing?* New York: Harper & Row, 이기문 역, 『왜 보수주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생명의 말씀사, 1972.
- Kil Huisung, "State and Sangha in Korean History", *Korea Journal* 21/8(1981): 41-48.
- Kim Byong-Suh, "The Explosiv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Today",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LXXIV/293(1985): 59-72.
- Kim Heung Soo, 'The Unification Church and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복원대학교 논문집』 23(1993): 37-61.
- Lee Hyo-Jae, "Religion and Social Values", *RAS Transactions*, XLVI(1972): 73-89.
- Luckmann, Thomas, *The Invisible Religion — The Problem of Religion in Modern Societ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7, 이원규 옮김, 『보이지 않는 종교』, 서울: 기독교문사, 1982.
- Maduro, O., *Religion and Social Conflict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2, 강인철 역, 『사회적 갈등과 종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Mcguire, Meredith B., *Religion: The Social Context*,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1981, 김기대 최종렬 옮김, 『종교사회학』, 서울: 민족사, 1994.
- Mckown, D. B., *The Claasical Marxist Critiques of Religion: Marx, Engels, Lenin, Kautsk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5, 강돈구 박정해 옮김, 서울: 서평사, 1991.
- Niebuhr, H. Richard,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노치준 옮김, 『교회분열의 사회적 배경』, 서울: 종로서적, 1983.
- Ockenfels, Wolfgang, *Kleine Katholische Soziallehre*, 윤여덕 옮김, 『기업인을 위한 가톨릭 사회론』, 서울: 가톨릭 교육문화원, 1994.

- O'Dea, Thomas F., *The Sociology of Religion*, 권규식 옮김, 『종교 사회학 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 Robertson, Roland, *The Sociological Interpretation of Religion*, New York: Schoken Books, 1970, 이원규 역, 『종교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Ryu Tongshik, "Religion and the Changing Society of Korea", *East Asian Cultural Studies* XI(1972): 6-16.
- Tawney, Richard Henr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김종철 옮김, 『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서울: 한길사, 1983.
- _____, 이경식 옮김,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 서울: 전망사, 1983.
- Theissen, G., 조성호 역, 『예수운동의 사회학』, 종로서적, 1981,
- Tole, James M., 「교파주의 연구」, 『한길』 242(1985. 2): 25-45.
- Walraven, B. C. A., "The Social Significance of Sorcery and Sorcery Accusations in Korea", *Asiatische Studien*, XXXIV/2(1980): 69-90.
-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권세원·강명규 옮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서울: 일조각, 1958.
- Weber, Max, 양희수 옮김, 『사회 과학 논총 — 세계사상교양전집 속 9』, 『종교 사회학 논문집 서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서울: 을유문화사, 1974.
- _____, 손제석 외 옮김, 『막스베버 — 세계의 대사상 12』,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권세원 옮김), 『유교와 도교』(이돈녕 옮김), 서울: 휘문출판사, 1978.
- _____, 이상률 역, 『유교와 도교』, 서울: 문예출판사, 1992.
- _____, 홍운기 역, 『힌두교와 불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Wilson, Bryan, *Contemporary Transformations of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윤원철 역, 『현대의 종교변용』, 서울: 전망사, 1984.
- Yinger, J. Milton, *Sociology Looks at Religion*, 한완상 옮김, 『종교 사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 _____, 『종교사회 변동』, 『현대종교』, 118(1983. 5): 170-173.
- _____, 『종교사회 변동; 소종파의 기능과 역기능』, 『현대종교』

115(1983. 1): 195-198.

Youngsook Kim Harvey, "The Korean Shaman & the Deaconess...", Kendall & Dix ed., *Religion & Ritual in Korean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pp.149-170.

宮田 登, 「鄭鑑錄의豫言」, 최길성 편역, 『韓國의社會와宗教』, 亞世亞文化社, 1982, 355-369.

宮嶋 博史, 「朝鮮社會と儒教」, 『思想』 750(1986): 59-87.

藤 能成, 「韓國の宗教事情」, 『宗教文化研究所紀要』(1988): 49-89.

藤井 正雄, 「現代日本新興宗教의 샤만적 女性教祖의 三類型」, 『샤마니즘의 現代的 意味』, 圓光大 民俗學研究所, 1973, pp.51-58.

鈴木 仁志, 「在日朝鮮人の民間信仰」, 『一橋研究』 XV/2(1990): 101-124.

柳東植, 「在米韓人の定着過程における宗教の役割—ハワイの韓人社會とキリスト教を中心に」, 『アジア文化研究』 2(1990): 89-101.

杉山 晃一, 「韓國農村의 社會와宗教」, 최길성 편역, 『韓國의 社會와宗教』, 亞世亞文化社, 1982, pp.161-182.

西田 信治, 「李朝後期の朝鮮社會と國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5(1988): 59-82.

安田 ひろみ, 「韓國における民族宗教の職能者の分類についての覚え書き」, 『ソキエタス』 15(1988): 95-109.

_____, 「韓國傳統社會の女性の生活における『抑壓』とシャーマニズム—女性のライフ・ステージへの對應として」, 『ソキエタス』 17(1990): 1-11.

梁賢惠, 「キリスト教と帝國主義的精神—尹致昊の場合」, 『宗教研究』 LXVII /2(1993): 95-120.

余英時 著, 정인재 역, 『中國近世宗教倫理와商人精神』, 서울: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93.

李健泳, 「日本と韓國における社會文化構造の比較—儒教の秩序文化とその受容」, 『名古屋商科大學論集』 XXXVII/2(1993): 443-466.

李成市, 「新羅中代の國家と佛教」, 『東洋史研究』 XLII/3(1983): 52-78.

朝倉 敏夫, 「韓國祖先祭祀の變化—都市アパート團地居住者を中心に」,

-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XIII/4(1988): 741-786.
- 泉 靖一, 村武 精一, 「韓國研究의 回顧와 展望」, 최길성 편역, 『韓國의 社會와 宗教』, 亞世亞文化社, 1982, pp.1-12.
- 清水 雅人, 「韓國が生んだ‘神の代理人’」, 『正論』 203(1989. 7): 166-177.
- 村山 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최길성, 장상언 역, 『朝鮮의 類似宗教』, 啓明大學校出版部, 1991.
- 秋葉 隆, 『朝鮮巫俗의 現地調査』, 최길성 역, 啓明大學校出版部, 1987, 8-9장.
- 洪淳祖, 「羅末麗初の 變動期における 政治と 宗教」, 『日本文化研究所 研究報告』 22, 23(1986, 1987): 45-66, 29-45.
- 丸山 孝一, 「韓國離島社會における 儒教の展開に関する一考察」, 『九州大學比較教育文化研究施設紀要』 38(1987): 35-46.